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씨발이로 태어난 서자 桓雄의 실체

(환웅)

씨발이의 내력과 우리역사 뿌리

우리민족의 풍속 중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씨발이'라는 풍속이 있다. 가계 혈통 계승은 원칙적으로 분처가 낳은 장자 우산이기 때문에 그 분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정식 결혼하지 않은 외부 여자와 서로 계약을 맺고 남편과 합방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분처 소생으로 입적하여 집안의 대를 잇고 장자권을 계승하는 제도를 씨발이라 말한다.

1987년 임권택 감독은 이런 '씨발이' 풍속을 영화로 제작하여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하였고, 주연을 맡은 김수연이 당시 아시아인 최초로 여우(女優) 주연상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명예와 부, 가문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던 조선시대, 한 명문대가의 씨발이로 들어간 옥녀(김수연)는 태기가 있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그 집 서방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아들을 낳자 관습대로 쫓겨나고, 옥녀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 목을 매고 만다는 비인간적인 풍속을 그린 것이다.

씨발이의 풍속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전하고 있다

씨발이 풍속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16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분처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1987년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된 임권택 감독의 《씨발이》에서 동양권 최초로 여배우주연상을 수상한 김수연의 연기장면

주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려 했고, 하갈은 자기가 주인의 몸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분처를 모함하여 쫓아내고 분처가 되고자 집안의 풍과를 일으킨다.

후에 분처 사라의 무고함이 밝혀져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몸종 하갈과 씨발이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관아로 내쫓게 한다. 몸종의 신분인 하갈의 무리한 욕심으로 그 아들들마저 하나님의 가계에 대를 잇지 못

하고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씨발이 풍속이나 영화 씨발이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다른 점은 이스마엘과 그를 낳은 어머니 하갈이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계에 대를 잇지 못하고 다 같이 쫓겨 갔다는 점이다.

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90세 된 분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 네 씨가 되리라'고 축복하여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할 줄 알았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

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어린 아들 이삭을 장자로 삼아 집안의 대를 잇게 된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씨발이가 그 손자 야곱 때에 와서도 똑같이 되풀이 된다. 이걸 미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한민족처럼 후대를 잇기 위하여 남아선호사상과 장자 중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씨발이 풍속을 미루어 볼 때 한민족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이라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단군민족은 언제 어디서 살다가 이주해 왔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풍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직계천손민족인 우리 단군민족은 고조선 역사를 잃어버렸지만 그 문화 풍속만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결혼 풍속과 장례 풍속, 제천행사, 기타 온갖 우리 풍속이 이스라엘 성경 역사 속에 녹아 있다. 결혼 풍속 중에 씨발이 외에도 데릴사위제, 민며느리제, 형사취수제도 등이 이 고대 부여, 고구려시대에 행해졌다.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조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의 세 아들을 결혼시키는 장면에서 형사취수제도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창38:1~30).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는 씨발이와 형사취수제(死娶娶媾)

2면으로 계속

우담화에 얽힌 이야기 1편

지혜로운 자는 우담바라를 보게 되면 생미륵불을 찾는다

생미륵불이 옥고를 치를 때, 불상에 처음 우담화가 피었다

적암유록에 석가 멸도 후 3천 년 만에 운수를 다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한다고 했다(『三千年之運轉預言 當末下生彌勒佛』- 格菴遺錄 歌謠總論). 이와 같이 예언대로 생미륵불은 불방불기 3007년(서기1980년) 10월 15일에 성불(成佛)하셨는데, 그때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며 삼라만상과 더불어 성불의 소망으로 기뻐 어쩔 줄 몰라 경중경중 날뛰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은 생미륵불을 알아보았지만 죄업(罪業)에 갇힌 인간들만은 오히려 생미륵불을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삼라만상이 감응하여 7년 옥고를 치르면서 만인의 죄를 담당하는 생미륵불을 존송(尊崇)하며 불상에 우담화를 피웠다.

만법전 극생가(極生歌)에 '옥종고생 칠년간에 철장 속 찬 자리에 생사가 조석이나..', 라는 구절의 예언대로, 생미륵불 조희성님은 1994년 1월 10일 구속되어 7년 옥고를 치르시고 2000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셨다. 생미륵불처님은 원래 3년간 옥중생활을 하고 1997년에 나오게 되어 있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거듭 죄를 뒤집어 씌워 4년



철계사 관음보살상에 21송이 우담화(좌), 풀잡자리 알 부화 전(중앙), 금화를 피우는 생미륵불(우)

을 더 감옥에서 살게 하였다. 바로 그때 한국 최초로 한글식 사찰이름을 단 우리절(경기도 곤지암) 금동여래좌상 오른쪽 가슴에 24송이, 직경 3센티미터 되는 '우담화'가 피었는데, 북방불기 3024(1997)년 7월 22일에 발견된 우리절 우담화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핀 것이다. 그리고 생미륵불의 7년 옥종고난을 마치고 석방되기 약 1개월 전에 대전 천태종 광수사 청동 비로자나불 오른팔 팔꿈치 밑에서 우담화가 피었다.

어떤 풀잡자리알도 하나의 대롱 끝에 다발로 있지 않다

우리절의 금동여래좌상에 핀 우담화와 광수사 청동비로자나불에 핀 우담화 그리고 신어산 은하사 신수대장정에 핀 황금색 우담화, 해화종 대운사에 보셔

진 불상 손가락에 핀 우담화, 경주시 정각사 미륵불상에 핀 우담화 등은 대롱 같은 한 줄기의 끝에 꽃송이가 다발로 개화한 특징을 지녔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풀잡자리 알의 형태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참고로 칠성풀잡자리 알은 타원형으로 길이가 7~8mm 정도 되는 난방이라고 하는 투명한 가는 낚시줄 같은 것에 하나씩 매달아 낚으며 20~30여개를 무더기 형태로 잎 뒷면 또는 줄기에 산란한다(출처 농림업 역사전: 농촌진흥청).

그런데 2000년 10월 6일 새벽기도를 올리던 한 신도에 의해 발견된 철계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불 중 관음보살상의 왼쪽 눈썹 주변에 직경 1cm 크기의 우담바라 꽃 21송이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영락없이 풀잡자리 알과 같

았다. 그 당시 모대학 생명과학부 교수(곤충학)는 "애벌레가 알을 빠져나갈 때 알 껍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교수직을 걸고 "철계사의 21송이의 우담화는 풀잡자리 알이 100% 확실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0년 10월 25일자 "우담바라는 풀잡자리 알" ...곤충학자들 확신).

그런 가운데 "풀잡자리 알이 바로 우담바라"라며 "불교계와 과학자들의 주장이 결국은 하나"라는 대원 스님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관악산 연주암의 부주지인 대원(大圓) 스님은 한국 불교대사전과 한자사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불교관련 사전인 한국불교대사전(총7권 명문당)의 제5권 7페이지 '우담화' 항목을 보면 "우담발화라고도 하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 비로소 핀다고 한다. (종략) 또 풀에 청령(잡자리)의 난자(알)가 붙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 동아한학대사전(동아출판사) 등 대형 한자사전에서도 '우담화'란 항목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꽃'이라는 뜻과 함께 '초부유(풀잡자리)의 알'이라는 뜻을 첨부해 놓았다. 그러면서 대원 스님은 "풀잡자리알이라는 과학자의 주장도 맞 2면으로 계속

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외우자. 내가 하고 싶은 반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기 싫다고 불평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발 정신들 차리고 열심히 하자."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석선자)
- *구역 1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3등: 6구역
-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 2등: 고선희 권사
- 3등: 김인숙 집사*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0)

"반대생활을 해서 완전히 나라는 의식을 죽여야"

영생의 길은 사망의 신인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해서 이긴자가 된다고 여러분들도 반대생활을 해서 이긴자가 되어야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나를 이기는 이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반대생활을 해서 완전히 나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반대생활을 해서 존심을 부리게 되면 나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생명인 하나님의 신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1)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 없다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영생의 희망을 갖고 살아야 그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대개 죽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죽을병에 걸렸든, 다스려도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라는 희망을 갖고 살면 그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영생의 희망이 하나님의 영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개인.....예배는 나를 죽여하나(님)가 되는 예식이다

'인(仁)은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한다. 참사람이란 나를 이겨 예로 돌아감이란 뜻이다. 나를 죽여 없애야 내가 된다는 의미이니 예배는 나를 죽여 하나(님)가 되는 첫 걸음이다. 예배를 통해 나를 죽이고 하나(님)가 될 때 세상 밖에 나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가 되자! 영생을 얻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기도가 죄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죄가 될 것인 즉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재점검하고 고칠 점은 고치면 결국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비결을 외치고 주님의 진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를 품을 때 발을 포개지 않는다. 오와 열을 반듯하게 맞추고 방식은 하나로 통일한다. 신발주머니는 오른쪽에 두되 신발이 뒤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앞뒤로 절을 할 때는 엉덩이를 발뽀뽀 치어 댄 채 앞드리되 등은 수평으로 하고 이마는 바닥을 짚는 손등 위에 닿을 듯할 정도로 앞드리다.

그런 가운데 "불교계와 과학자들의 주장이 결국은 하나"라는 대원 스님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관악산 연주암의 부주지인 대원(大圓) 스님은 한국 불교대사전과 한자사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불교관련 사전인 한국불교대사전(총7권 명문당)의 제5권 7페이지 '우담화' 항목을 보면 "우담발화라고도 하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 비로소 핀다고 한다. (종략) 또 풀에 청령(잡자리)의 난자(알)가 붙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 동아한학대사전(동아출판사) 등 대형 한자사전에서도 '우담화'란 항목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꽃'이라는 뜻과 함께 '초부유(풀잡자리)의 알'이라는 뜻을 첨부해 놓았다. 그러면서 대원 스님은 "풀잡자리알이라는 과학자의 주장도 맞 2면으로 계속

나쁜 대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두 하나가 된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성전에 들어서면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여 주님께 절한다. 일어선서 주님을 영접 할 때는 방석을 밟고 서지 않는다. 성전에 들어서는 개인적인 얘기는 일체 금하며(휴대폰도 끈다) 들어온 순서대로 빈 좌석으로 가서 앉는다. 무

위에 예시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통일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언(苦言) 겸 제안을 해 본다.*

박명하 승사 / 4 지역장

한겨레신문 김만철 부회장 근황 보도



한겨레는 2017. 1. 21자 1면에 김만철 부회장 관련 토요판 특집 기사를 실었다. 북한에서 청진시대 교수 생활을 했던 김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영생은 과학"이라며 피의 원리에 따르면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society/society_general/779656.html 탈북 30년 김만철 인터뷰

본부제단 1월 지역활동 시상

4지역 작년 5월 이후 8개월만에 1등



4지역 이영애지회장이 상금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7일 화요일, 본부제단의 2017년 1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탄탄한 전력의 4지역이 월등한 성적으

로 1등을 차지하였고 5지역이 2등을 차지하였으며 오랜만에 6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감사헌금이 많은 순서대로 박순희 권사가 1등, 고선희 권사가 2등, 김인숙 집사가 3등을 각각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올해는 타성에 젖어버린 인간의 못된 습성을 벗기 위해 노력해보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냥 나태해지지만 하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역사를 펼치겠는가. 요절도 열심히 외우자. 외우기 싫